詩心 그윽한 禪의 향기

계곡에 나가 나의 발을 씻고
산을 보고 나의 눈을 맑히며,
부질없이 영욕을 구하는 일 없으니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랴.
臨溪濯我足 看山淸我目
不夢榮辱事 此外更何求

고려 진각혜심(眞覺慧諶) 선사의 '유산(遊山)' 이란 제목의 5언 절구다. 산하대지는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뭇 생명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주고 있다. 자연에 순응한다면 우리도 자연대로 맑고 깨끗하여지리라. p68

푸른 눈이 청산과 마주하니
그 사이에 티끌을 허용치 않고
자연의 청정함이 골수에 이르나
다시 어찌 열반을 구하리오.
碧眼對靑山 塵不容其間
自然淸到骨 何更覓涅槃

역시 진각혜심선사의 '선당시중(禪堂示衆)' 이다. 대자연의 품안에 안겨 그 섭리에 따라 우주 법계의 진리를 좇는다면 다시 더 구할 것이 없도록 만족이 게 있으련만. 영화(榮華)를 구하여 덧없는 공속에 헤매면서 치욕 속에 빠지기 때문에 지옥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p69

◇달공 조홍식 거사.

'달공(達空)거사' 로 더 잘 알려진 조홍식 거사(82세).

그가 최근 펴낸 〈선심시심(禪心詩心)〉에는 재가불자로서 오랫동안 수행해 온 그만의 향기가 배어난다.

부처님과 조사들은 깨달음에는 재가도 없고 출가도 없으며 오르지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신심만 있다고 하였던가. 달공거사는 구산스님, 송담스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30년 넘게 수행해 온 재가 불교의 산 증인이다. 서울불교회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 참여불교재가연대 고문 등을 맡고 있으며,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자 불문학(佛文學)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학자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5시부터 1시간 동안 요가를 하고, 시간만 나면 '이뭣꼬' 화두를 들고 좌선에 드는 달공거사. 1986년 정년퇴임 이후 본격적인 수행에 매진한 달공거사는 법련사 철야정진은 물론, 공주갑사, 무문관 등 전국의 이름난 수행처를 찾아 가행정진을 계속했다.

선심시심

선사들 어록 현실생활에 맞춰 재해석
수행과 깨달음의 문제 선시 통해 꿰뚫어

이 책은 그런 그가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월간 〈불광〉에 '선심시심' 의 제목으로 연재한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주로 선사(禪師)들의 어록을 풀이하고, 거기에 오늘의 상황을 반영하여 재해석했다. 10여년 전에 쓰여진 것들인데도 지금 읽어도 오늘의 우리 현실에 그대로 거울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무문관 · 낮닭 우는 소리에 깨치다 · 공명의 저 언덕 · 비 그치니 산은 더 맑고 · 일 없는 도인 등 총 5장으로 구성됐으며, 달공거사 자신이 직접 부딪친 수행의 문제에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찾은 깨달음, 문화재에 대한 사랑, 선사들의 가르침과 숨겨진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에, 읽는 재미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한편 읽어가다 보면, 불문학자의 유려한 문체에 해박한 지식과 삶에 대한 통찰력 까지를 고스란히 전수받을 수 있다.

"나 자신처럼 길을 헤매는 이들을 위하여, 선각자들은 일찍이 그 길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다. 이 책이 그런 길잡이의 구실을 얼마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한편 달공거사의 불교와 인생이야기 〈달처럼 매화처럼〉(도피안사 刊, 9천원)도 함께 발간됐다. (도피안사 刊, 8천원) 이은자 기자 eleei@buddhapia.com

신세대를 위한 동양사상 새로 읽기

1차로 유가 · 묵가 · 도가 · 주역 4권

진보적 재야 동양철학자인 목정 기세춘씨가 '신세대를 위한 동양사상 새로 읽기' 시리즈 7권 중 1차로 4권을 펴냈다.

유가(儒家)사상을 집대성한 〈제1권 공자는 왜 소정묘를 죽였는가〉를 비롯해 묵가(墨家)사상을 정리한 〈제2권 인류 최초의 반전 평화운동가는 동이족의 묵수철학자-묵가〉, 도가(道家)사상을 정리한 〈제3권 일곱 번째 구멍을 뚫으면 도가 죽는 까닭-도가〉, 주역 64괘를 번역하고 시로 옮긴 〈제4권 고을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뀌지 않는다〉 등이 그것이다.

동양고전에 관심 있는 이들과 특히 한글세대인 신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양고전의 진수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핵심을 짚어주는 간명한 해설을 붙여 읽는 재미를 더했다.

특히 기씨는 그동안 거침없는 해설,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 날카로운 풍자로 고전강의에 새바람을 몰고 왔다는 찬사를 들으며 KBS와 EBS TV에서 '논어이야기' 와 '노자와 21세기' 강의로 화제를 모았다. 현재 EBS에서 강의하고 있는 도올 김용옥의 '논어' 와 '노자' 강의 내용과는 정면으로 대립된 입장을 취함으로써 도올의 맹점과 허구성을 비판하고 있다. (화남 刊, 각권 1만3천원) 이은자 기자

추사와 그의 시대

당대 지식인들 사상 사회적 상황 등 담아

〈추사와 그의 시대〉는 대외적인 격변기에 조선사회를 이끌던 추사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의 사상과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다.

추사와 그 시대의 정황을 분석하고, 농촌 경제의 변동을 정리하고 있으며, 추사의 역학사상을 분석했다. 또한 추사의 학문과 청조 학술과의 관계를 살피고 있으며, 추사 그림에서 법고 정신을 고찰하고 추사 일문의 사군자화를 분석하고 있다.

간송미술관 연구위원인 정병삼(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 유봉학(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이세영(한신대 국사학과 교수), 지두환(국민대 국사학과 교수), 강관식(한성대 회화과 교수), 방병선(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이민식(국동대 강사), 정재훈(서울대 강사 씨 등이 참여했다. (돌베개 刊, 1만6천원)

해외불서

성 베네딕트의 율법

베네딕트회를 창시한 성 베네딕트(Saint Benedict: 480-543)의 율법은 6세기 이래 가톨릭 수도원의 일상생활을 규정한 규범이었다. 다양한 종교, 특히 가톨릭과 은밀한 교류가 있었던 불교의 계율 역시, 동시대의 사원과 승려들의 삶을 제한하는 규범이었다.

〈성 베네딕트의 율법(Benedict's Dharma)〉에서 노먼 피처, 조셉 골드스타인, 쥬디트 짐머 브라운, 이파 등 네 명의 뛰어난 불교학자들은 '종교의 규범' 이라는 독창적인 주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들의 치밀한 분석과 역사적 일화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은 불교사원 및 가톨릭 수도원의 지혜를 관통하는 조망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들의 결론은 어떠한 종교적 전통도 유사한 계율 또는 율법을 통해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패이트릭 헨리(Patrick Henry) 엮음, Riverhead Books 출판.

김재경 기자 gkim@buddhapia.com

마음공부에 도움될 책 2권

달라이라마의 마음공부

달라이 라마는 열여섯 살에 조국의 자유를 잃었고, 스물다섯에 조국을 떠났으며, 이후 40여 년 동안 티베트 독립운동을 하는 망명객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듯 결코 평온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달라이 라마는 언제나 미소 띤 얼굴과 열린 가슴으로 사람들을 대한다. 그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 걸까?

'분노를 사랑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이기심을 자비심으로 바꾸는 마음수련법' 이란 부제가 달린 〈달라이라마의 마음공부〉는 1999년 8월 달라이 라마가 뉴욕에서 대중에게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불교의 수련 방법' 을 주제로 한 이 강연에서 달라이라마는 8세기 인도 성자 카말라쉴라의 〈명상의 중간 길이 단계들〉, 14세기 티베트 수행자 트그메 이 상포의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련법〉이라는 책과 11세기 티베트 성자 랑그리 탕파의 '마음공부에 대한 여덟 구절' 을 바탕으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전하고 있다. (해냄 刊, 8천5백원)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라

틱낫한 스님이 이끄는 프랑스 플럼 빌리지에는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학교' 가 있다. 여기서는 1년동안 '깊이 들여다보기' 라는 과목만 가르친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는 수행을 하게 되며 더불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며 서로의 맺힌 매듭을 푸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의 책 〈마음을 멈추고 다만 바라보라〉는 이처럼 스님이 명상센터를 이끌며 겪었던 일들과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 '마음밭 가꾸기' 라는 주제에 대해 한층 더 무르익은 가르침을 전한다.

"지금 이 순간을 최고로 멋진 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쁜 일상의 흐름을 멈춤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스님은 '멈춤' 의 의식을 통해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주는 들 刊, 8천5백원) 여수령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제공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금강경 마음다운우리말경전II	우룡스님	효 림
3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4	바로 이번 생에	우빤디따	불공출판사
5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6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7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8	깨침과 깨달음	박 성 배	예문서원
9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10	선가구감	청허스님	효 림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새책소개

별을 보면 법을 보고…

천문학 박사인 서울대 이시우 교수가 펴냈다. 제1장 '우주와 법계' 에서는 천문학의 내용과 자연의 이법을 대비해 살펴보았으며, 제2장 '법계의 이해' 에서는 앞의 단원에 나오는 주요 용어와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신구문화사 刊, 1만원)

시마, 저주받은…

'시마(詩魔)' 란 시인으로 하여금 시를 쓰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시적 영감을 말한다. 당나라 때 시인 백낙천이 처음 사용한 이래 숱한 문장 속에서 그 함의와 양상을 달리하면서 이어져 왔다. 이 책은 우리 옛 글 속에 담겨 있는 시마의 의미를 찾아 고전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인 김풍기씨가 펴냈다. (아침이슬 刊, 1만2천5백원)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02-722-4162 팩스 : 02-737-0697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 (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